

the 2nd IPAP

SEA OF PEACE

09.25 TUE

11.25 SUN

2012.09.25 Tue
- 11.25 Sun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평화의 바다 _ 물위의 경계

개막일시 | 2012. 9. 25(화) 17시, B동 전시장

전시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외

관람시간 : 10:00~18:00 (금, 토, 10시~20시, 월요일 휴관)

특별전시 | 2012. 9. 28 (금) - 10. 4(목),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전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the 2nd IPAP

SEA
OF
PEACE

09,25 TUE
11,25 SUN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

2 0 1 2 인 천 평 화 미 술 프 로젝 트

평화의 바다 _ 물 위의 경계

2012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 _물위의 경계'의 시작은 인천의 전쟁과 관련된 역사가 묻어 있는 인천도심과 서해 답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5월 19일, 자유공원 월미도 일대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도보답사를 시작으로 강화도, 교동도, 연평도, 백령도까지 총 4차례의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답사는 프로젝트 참여 작가와 관계자 뿐 아니라, 언론인, 시민참여단 등 총 140명이 참여하여 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보고 느끼고, 그동안 가려진 인천의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340분의 시간 동안 414km를 걷고 자동차와 배를 타고 다니며 인천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섯 멘토의 현장안내와 심도 깊은 강연을 통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인천의 역사와 정치 문화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2년 봄부터 여름까지 60여명의 예술가와 함께 지나는 길들을 '평화의 바다 _ 물위의 경계' 전시를 통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2012. 9. 25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승미**

2012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 _ 물 위의 경계

전시기간 2012. 9. 25(화) ~ 2012. 11. 25(일)

관람시간 10:00~18:00(금, 토, 10:00~20:00,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외

특별전시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전시

2012. 9. 28(금) ~ 2012. 10. 4(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백령도 Baengnyeongdo

- 10 강현욱 KANG Hyun-wook
- 11 공성훈 KONG Sunghun
- 12 권윤희 KWON Yuni
- 13 김봄 KIM Bom
- 14 김주호 KIM Jooho
- 15 김창기 KIM Chang-ghi
- 16 김현철 KIM Hyunchul
- 17 민재영 MIN Jaeyoung
- 18 박아일 BARK Yail
- 19 박충의 PARK Chungui
- 20 선무 Sun mu
- 21 송필용 SONG Phil Yong
- 22 윌 볼튼 WIL BOLTON
- 23 윤석남 YUN Suk Nam
- 24 이시하라 노리코
ISHIHARA Noriko
- 25 이지현 LEE Ji-Hyun
- 26 정정엽 JUNG Jungyeob
- 27 조우치 Zhou Qi
- 28 짜까뻘 타나티라난
Jakraphun TANATEERANON
- 29 최병국 CHOI Byung-kuk
- 30 최정숙 CHOI Jung Sook
- 31 홍지윤 HONG Jiyeon

연평도 Yeonpyeongdo

- 34 김보섭 KIM Bo-sub
- 35 김선두 KIM Sundoo
- 36 김지원 KIM Jiwon
- 37 김효숙 KIM Hyo-suk
- 38 노순택 NOH Suntag
- 39 류성환 RYU Seong Hwan
- 40 박방영 BAK Bang-young
- 41 박인우 PARK Yeen-woo
- 42 박흥순 PARK Heung-soon
- 43 백인태 BAIK Intae
- 44 오석근 OH Suk kuhn
- 45 율쓰양 WOOPSYANG
- 46 이수영 LEE Sooyoung
- 47 이이남 LEE LeeNam
- 48 이인 LEE In
- 49 이종구 LEE Jong Gu
- 50 임장환 LIM Jang-hwan
- 51 정용일 CHUNG Yong-il
- 52 한윤기 HAN Youn-Ki
- 53 허용철 HEO Yong Cheul
- 54 홍선웅 HONG Seonwung

강화도 · 교동도 · 인천
Ganghwado · Kyodongdo · Incheon

- 58 김광성 KIM Kwang Sung
- 59 김수환 KIM Soohwan
- 60 박상희 PARK Sang-hee
- 61 신태수 SHIN Taesoo
- 62 차기울 CHA Ki-Youl

황해 프로젝트
Yellow Sea Project

- 64 고진한 KO Jin-han
- 65 구본아 KOO Bon-a
- 66 공싌루 GONG Xinru
- 67 김순임 KIM Soonim
- 68 미즈노 류세이 MIZUNO Ryusei
- 69 쉰 Shun
- 70 야마가타 타다마사
YAMAGATA Tadamasa
- 71 왕칭 WANG Qing
- 72 이타미 히로시 ITAMI Hiroshi
- 73 장진 JANG Jin
- 74 최영 CHOI Young
- 75 하연수 HA Yeonsoo

A map of Jeonju, South Korea, highlighting six sightseeing spots with numbered labels and circular icons. The spots are: 1. Heart of Jeonju (1.심정각), 2. Dooamjeon Temple (2.두무전대입구), 3. Cheonanham 46 Yongsa-wire (3.천안함46용사위령탑), 4. Jungwado Church (4.중화동교회), 5. Jeongdonghae (5.정동해안), and 6. Sagukhae (6.사곡해변). The map also shows other landmarks like Gyeongju Port (고령포구), Jeonju Station (전주역), and various traditional Korean houses (hanok).

강현욱

KANG Hyun-wook



제국의 미사일 EMPIRE MISSILE
100x200x200cm 혼합재료 Mixed media 2012

강현욱은 1998년 목원대에서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립현대예술스튜디오 프레누아를 취득하였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미디어 설치 미술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2년 대전 이응노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며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국가의 구조 안에서 평화의 존재의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불안감, 공포, 분노 ...

공성훈

KONG Sung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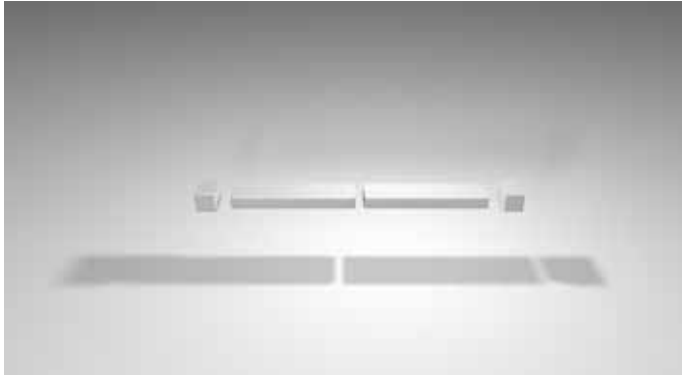
흰머리 Gray Hair
150x120c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012

공성훈은 1987년 서울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최근 《겨울여행》(신세계 갤러리, 2010), 《서울, 도시탐색전》(서울시립미술관, 2011), 《이미지의 수사학》(서울시립미술관, 2011), 《제 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인천아트플랫폼, 2011)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연 많은 바다, 시름도 많다.

권윤희

KWON Yu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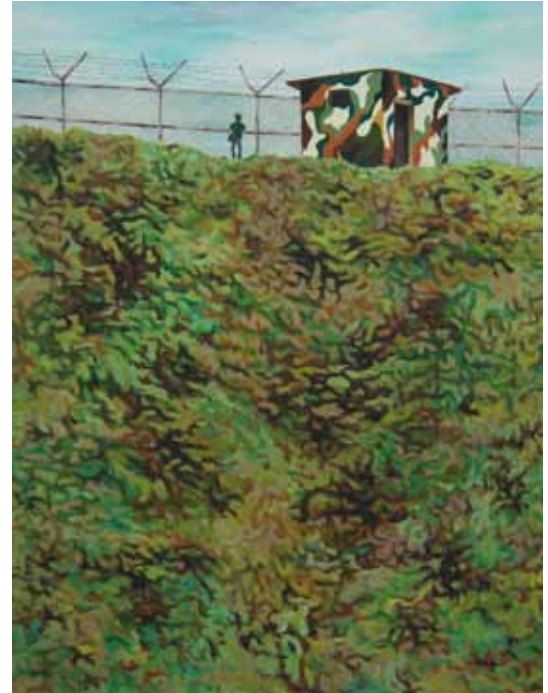
모스 부호 - 컨셉 스케치 Morse Code _ concept sketch
가변설치 Dimension variable 싱글 채널 비디오와 디지털 프린트 Single Channel Video and Digital Print 2012

권윤희는 2003년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입체미술학과와 2009년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대학원 디지털 미디어학과를 졸업하였다. 영상 작업으로, 실험적인 데이터의 그래픽 재현(data visualization)을 통해 추상화되고 수치화된 심적 혹은 물리적 현상, 사회심리 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 분석하고 형상화함으로써 이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작품〈그 시에 대한 언급술〉에서 분단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남북의 시를 모아 특정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한 단어들을 지워나가면서 남아지는 단어들로 제 3의 시를 만들어 나간다. 다시 〈모스 부호〉로 재구성된 시들이 전환되면서 백령도 바다의 안개 속에 프로젝션 된다. 단절로 인해 멈춰있는 언어로 다시 재 구현되는 영상은 백령도의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안개와 바람이 불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평화에 대한 환영〉은 백령도 가는 길 수십km의 물살을 겹쳐보며 현상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이 변함에 따라 관념화되는 평화를 읽는다.

김봄

Kim Bom



백령도 Baengnyeongdo
53x41cm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2012

김봄은 2003년 덕성여자대학교 동양학과, 2007년 동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조립된 산수》(스페이스 아치, 서울 2007)를 시작으로 《그림지도》(관훈갤러리, 서울, 2008) 2009년 갤러리 현대에서 원도우 전시 등의 개인전을 가졌고, 2011년 국립현대미술관 교양창작스튜디오에 입주, 국제교향 입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Walking to the II》(CEAAC, 프랑스, 2011)전을 가졌다. 그 밖에 경기도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비원갤러리, 현대갤러리 외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처음 마주한 백령도는 흐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덮여있었다.

가는 곳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해안 절경, 풍물해안, 사곶해변, 가암괴석의 비경.

그렇게 백령도는 나에게 눈에 담고 발로 밟은 섬이다. 답사하면서 본 바다, 산맥, 교회,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심창각 등이 지형학 도면 위에 다른 시선 속에서 공존한다. 마음 속에 떠다니는 이미지들은 기억 속에 지속되어 '그 곳'을 상기할 때마다 추억담처럼 읽혀지고, 타인에게는 전달 가능한 경험으로 옮겨진다.

김주호

KIM Joo Ho



궁합이 맞는 A well-matched
164x45x173cm 나무, 티셔츠 wood, T-shirts 2012

김주호는 197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 조소과, 1986년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최근 〈사람사이〉(관훈갤러리, 2012) 《생생풍경》(가회동60, 2010), 등의 개인전과 《서촌, 땅속에서 만나다》(아트사이드, 2012), 〈인천, 조각을 말하다〉(가온갤러리, 2012) 등의 단체전을 가지고 있다.

백령도, 북녘땅을 쳐다본다. 바다 멀리보이는 광경은 안개 때문인가 환상적이다.

남북이 이렇게 겹쳐려운 관계가 되다니 더 이상 가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남북의 긴장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다.

미워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거나 심지어 잘못 말했다고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실정이다.

평화를 말하면서 증오를 심어주는 지금의 우리 주변을 생각하게 한다.

태극기는 우주만물의 조화를 상징한다. 조화로움 세상을 구현하는 것일이다.

가운데 원에서 서로 교합하는 형상은 아름다운 궁합을 말해준다.

둘이 하나가 되는 입맞춤, 궁합의 결정판이다.

이런 하나가 되는 형상은 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둘이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면은 환상적이다.

댄스는 이제 건전한 스포츠로 그 멋은 예술의 경지로 보고 있다.

한반도를 이와 같은 예술적 경지의 춤사위 장면으로 그려 보았다.

심장은 두근두근, 희망으로 가슴 뛰는 순수한 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씨를 그려 넣었다.

평화는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 행동하는 미술행위의 방편으로 티셔츠 그림을 그리고 마네킹을 만들어 입혔다. 백화점식 진열의 설치미술이다.

눈에 익은 장면의 차용은 소통이라는 명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준다.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은 티셔츠그림을 통한 사회참여로 할 수 있다.

김창기

KIM Chang-ghi



흐르다 flow
75x95x140cm
자연석, 철사, 용접
stones, wire, welding
2012

김창기는 1992년 인천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이탈리아 까리라 국립아카데미에서 조각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돌의 질량을 버린 “움직이는 돌”을 주제로 한 귀국보고전을 시작으로 물질과 비물질, 자연과 인공물, 사람과 사람 등의 “관계맺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스안의 공간은 물속을 연상하는 공간으로 위의 유리막을 통해 밖의 공간이 마치 꿈속의 몽환적 느낌을 준다.

이념적 대립관계에서 한 물에 섞이지 못하는, 애절하면서도 한 물에 흘러들지 못하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김현철

KIM Hyunchul



백령도 연화리 바다 The Deep Blue Sea
60.5x36.4cm 아사존에 수묵채색 ink on canva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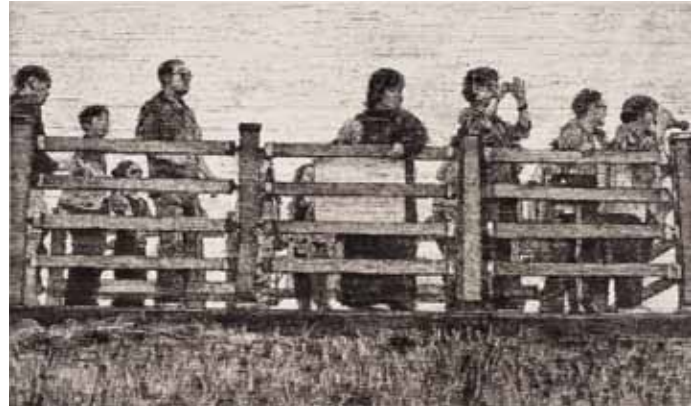
김현철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동양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섬-제주 전》(갤러리라운, 제주, 2012), 《제주에서의 120일 전》(한벽원갤러리, 서울, 2012), 《섬김 전》(갤러리노리, 제주, 2011)의 주요 개인전과 《한라산과 일출봉 전》(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2), 《한 · 중 작가교류전》(서안미술관, 중국, 2011), 《시대의 거울 '초상'》(북촌미술관, 서울, 2011) 등의 단체전을 가졌다.

바다를 만나다.
쭉쭉 물감을 풀은 듯한 그 청정함에 온 몸을 적시리라...
바다를 보았다.
한없이 맑고 투명한 것만 같았던 바다의 비밀스러움을...

—백령도 연화리 천안함 위령비에서

민재영

MIN Jaeyoung



백령도20120622 Baengnyeongdo20120622
105x180cm 한지에 수묵 ink on Korean pap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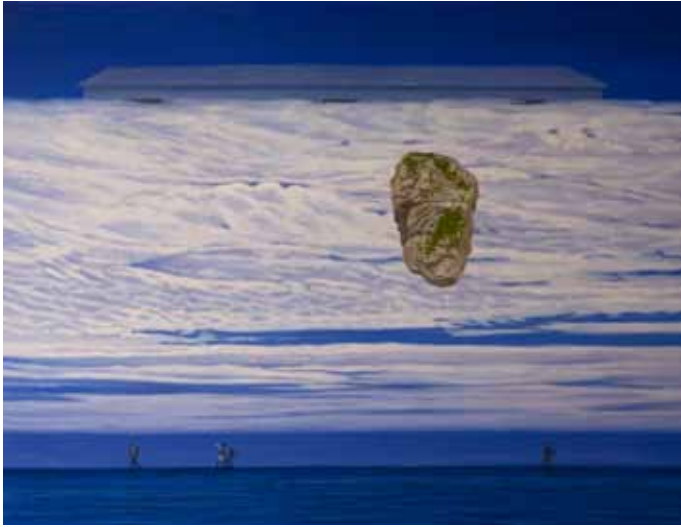
민재영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The Road Home》(갤러리 가회동 60, 2011), 《적응》(노암갤러리, 2010)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고, 2008~2009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 2006년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송은미술대상전에서 수상했으며 《서울, 도시탐색전》(서울시립미술관, 2011), 《한국화 판타지-한국화의 감각적 재해석》(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2010)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프로그래머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숨을 쉰다든지, 심장이 움직인다는게 아니야.
뇌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그건 발자국을 남긴다는 거야.”
— 『변신』, 히가시노 게이고 중에서 —

직접 그곳에 가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는 것.
기록하는 한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박야일

BARK Yail



컴백홈 1 Come back home 1
80,3x116,3c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012

박야일은 만종미술의 유산 속에서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가이다. 《너머전》(갤러리 눈, 2008) 등 개인전 4회를 가졌고 최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 1000일 기념전》(갤러리 아트가, 2011), 《아시아의 삶전》(전주, 2011), 《한국 몽골 국제미술교류전》(몽골, 2011) 등의 단체전을 가졌다.

쫓겨나지 않고 내몰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내 집에서 온전하게 거하는 것.
평화의 여러 얼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내 집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도.
'집'은 바로 단지 물리적 집이 아닌 바로 '나'이기도, 내 마음이기도, 내 일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한 사람'이다.
제 뜻과 달리 떠난 사람들, 제 집으로 돌아가 평안하길 바라며, 컴백홈."

박충의

PARK Chungui



요람
122x162cm
한지에 초크, 아크릴
Chock and Acrylic on Korean
paper
2012

백령도에서 태어난 박충의는 강화도에 정착한지 6년째다. 3년 전 직접 지은 작업실에서 주로 하는 일 이 그림 그리는 일이지만 전각돌과 나무를 깎고 새기는 작업도 병행한다. 거기에서 잡초 뽑는 일은 수행처럼 여기고 있다.

2011년 제1회 평화미술프로젝트 참여 작품 제작을 위해 백령도에서 한 달 동안 작업하였고 올 여름에는 인천아트플랫폼의 백령도 평화예술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 3개월 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한층 깊어진 백령도에 대한 탐구와 자세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을 만났고 그들의 일상 속에 남북의 긴장상황이 어떤 균열을 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9월이 오면 고향 백령도를 떠나 다시 강화도에서 그림과 돌, 나무, 잡초와 씨름을 시작하겠지... 그림에 등장하는 지훈이는 태어 난지 다섯 해 밖에 되지 않은 천진난만한 아이다. 백령도가 지훈이에게는 더 없이 아름다운 요람이면서 천국과 다름없다. 넓게 펼쳐진 사곶해변과 콩돌해안. 곳곳에 아늑하고 소박한 포구를 웅장한 암석을, 바닷가로 나가면 각종 해산물이 풍부한 백령도. 살다 보면 위험한 것들을 떠 짚어져야 하고 섬 안에 만연해 있는 반공의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지훈이의 앞날이 그려진다.

알고 지내던 주인이 어느 날 나에게 농담을 던진다. "우린 총알받이야!" 그냥 웃으며 넘길 말이 아니다. 육지에 산다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곳에 살아도 마찬가지인 걸...

탱크를 요람삼아 살아야하는 지훈이의 미래는 남북이 적어도 적대감만은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선무

Sun mu



코리아 Korea
150x150x200cm
철조망(분계선), 망치, 남북국기
2012

남과 북을 가로막는 선이 없어지길 바라는 뜻의 선무는 1972년 태어났고 200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 회화과와 2009년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최근 2011 《선을 넘다》(주한 유럽상공회의소, 2011), 《mind the gap》(뉴욕 맨하탄 sbd갤러리, 2011) 등 의 개인전과 《선무 노순택 2인전 우리는 행복합니다.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전》 등 단체전을 가졌었다.

송필용

SONG Phil Yong



생명의 바다-백령도 Sea of life-Baengnyeongdo
130x210cm 캔버스에 유화

송필용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1981년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198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1989년 《땅의 역사전》부터 시작된 그 풍경과 심상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우리풍경의 이면에 자리한 삶과 역사를 즐기치게 그려온 작가이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생명의 바다 백령도에 긴장과 공포의 분단 현실이 한없이 비통하게 느껴진다.
저 푸르고 청신한 물처럼 살가운 평화가 자리하길 기대해본다.

윌 볼튼

WIL BOLTON



백령도 Baengnyeongdo
5m 비디오/사운드 video/sound 2012

윌 볼튼은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으며 영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이다. 그는 주로 소리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비디오와 사진을 함께 사용해서 소리를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 그의 작품은 현장녹음과 악기의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디지털화한 후 기계음과 결합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의 작품 중 몇몇은 장소특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작가는 특히 공간의 울림, 공간의 역사와 분위기, 기억에 관심이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지난 여름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에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과물이다. 2012년 리버풀 비엔날레 인천도시관 〈Terra Galaxia〉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 작품은 섬 주변 바다의 상반된 면을 보여준다. 두무진 근처에서 배를 타고 촬영한 영상은 부서지는 파도의 폭력성과 잔잔한 수면 위에 비치는 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상은 콩돌해안에서 녹음한 부드럽고 평화로운 소리와 대비된다. 이 작업을 통해서 작가는 백령도의 평화와 폭력, 조화와 불협화음, 창조와 파괴를 구성함으로써 바다와 역사의 이중성을 탐구하고자 했다.

윤석남

YUN Suk Nam



도라지 꽃이 피었습니다 Doraji flower is in full bloom
가변설치 Dimension variable 나무위에 아크릴, 구슬 Acrylic on wood, beads 2010

윤석남은 1939년 만주에서 태어났다. 1983년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를 수료한 후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1996년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아시아 여성미술계의 대표적인 위상을 가지고 활발히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윤석남은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30여년 이상 한국의 여성주의미술을 이끌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2011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2년 리버풀 비엔날레 인천도시관 〈Terra Galaxia〉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시하라 노리코

ISHIHARA Noriko



저쪽 mukougawa
41x120cm 잉크젯 프린트 Inkjet Print 2012

이시하라 노리코는 일본 미야자키 공립대학교 국제 문화학과를 졸업 후 2011년 한국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그녀는 2009년부터 《Korean Wave》(Gallery Lamping street Beielefeld, 독일, 2010), 《Sparkling Silence》(Gallery Nottbeck, 핀란드, 2011) 그룹전에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아시아프 (ASYAAP)와 대구사진비엔날레 '2010 국제 젊은 사진가전'에 참여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 시프로그래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mukougawa는 일본어이고 정면이나 비교적 멀리 있는 곳, 거리를 둔 저쪽, 반대쪽, 상대방 등의 의미가 있다. 나는 여기서 또 다른 수평선을 본다. 백령도의 mukougawa에는 북한이 있고 북한의 mukougawa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보는 이 수평선은 왜 이렇게 슬프게 마음을 울리는 것일까? 나는 이 수평선이 궁금하고 신기하고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서로가 기대할 수 있는 mukougawa, 거기에는 선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나는 내 고향에서 수평선을 보고 있었을 때 지금의 순간을 상상하지도 못 했다. 내 작품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서서 다시 mukougawa에 대한 생각과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

이지현

LEE Ji-Hyun



내고향, 백령도 My Own Private Baengnyeongdo
9m 20s 단편영상 2012

이지현은 한양대에서 영화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칸느 바세-노르망디 대학에서 영화학 석사를 받았다. 80년대 후반 유럽의 작가주의 영화와 시각예술로써의 실험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7th Vibgy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atya Griham Cinema》(Thrissur, India, 2012), 《Regards sur la Coree du Sud, Cinematheque Lux》(Caen, France, 2010), 《한-EU 단편영화교류전》(시네마루 극장, 서울, 2010), 《G20 영화대축제》(시네마루 극장, 서울, 2010) 등의 그룹전이 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지현의 작품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백령도의 입장을 관조적 시선으로 관찰해, 이를 백령도 자연경관 및 특성과 연관시켜 문 실험영화이다. 전체 3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으며, '귀환, 평화, 죽음'의 챕터가 차례로 이어져 되풀이된다.

남자가 백령도로 돌아온다.

그 사이 한국은 분단을 넘어 평화로워져 있고, 때문에 남자는 백령도 곳곳에서 평화의 징표를 읽어낼 수 있다.

그는 백령도에 숨겨진 비밀을 친구에게 조심스레 이른다.

“심청 설화에 따르면, 이곳은 환생의 땅이란대. 때문에 백령도의 바다에 빠지면 꽃으로 환생한다단다.” 라는 사실을 남자는 알게 된다. 이 비밀을 전하자마자 그는 바다에 빠져든다. 깊이, 그리고 천천히.

정정엽

JUNG Jungye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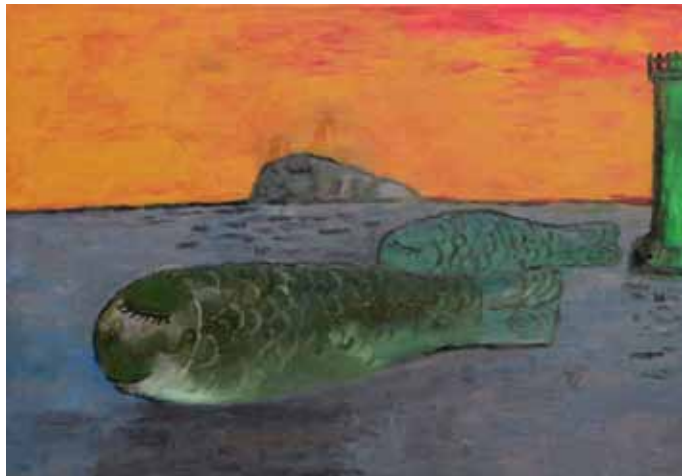
초대 1 Invitation 1
130x162cm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2012

정정엽은 1985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 《off bean》(갤러리 스케이프, 2011), 《얼굴풍경》(대안공간 아트포럼 리, 2009), 《red bean》(스케이프 갤러리, 2009) 등 9회의 개인전과 《hard times high times》(인터알리아, 2012), 《암스텔담 아트페어》(암스텔담, 2011), 《에니멀리어》(코리아나 미술관, 2011)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백령도 사곶해안에서 우연히 채취한 미역, 말리려고 집에 걸어놓고 보니 마치 내가 초대한 손님인양 당당하게 자신의 생명력을 과시한다. 초대한 손님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햇살을 만끽하며 몸을 말리고 있다. 미역 손님은 어디서부터 백령도 해변으로 흘러왔을까 북에서부터 바다를 헤엄치며 흘러왔을 것이다. 미역손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듯 북쪽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미역손님조차도 누리고 있는 이동의 자유로움, 일단 북쪽 사람들의 모자를 먼저 초대한다.

조우치

Zhou Qi



1-1
74x105c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012

조우치는 흑룡강성 출신으로 중국 중앙미술학원 회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개인전 《조우치 2007-2008》(Lee C Gallery, 2008)을 가진바 있고 《한중현대미술교류전》(798 렌 갤러리, 2009)와 《제 1회 인천 평화미술프로젝트》(인천아트플랫폼, 2010) 에도 참여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며 지난 여름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에 단기 프로젝트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짜까뽀 타나티라난

Jakraphun TANATEERANON



Art for Peace
various on difference projections 34 photo documentary slide show 2012

태국출신의 작가 짜까뽀 타나티라난은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자신의 삶이라고 믿으며 때때로 그의 삶이 예술을 반영하고 동시에 그가 만드는 예술은 삶에서 생겨난다는 믿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 아트플랫폼에 3기 입주작가이며 인천의 청년들과 함께 백령도를 답사하는 과정을 기록한 도큐멘타이다.

최병국

CHOI Byung-kuk



저 멀리 Far
85x130cm 화선지에 수묵 2012

최병국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는 《제 7회 인천—산동국제미술교류전》(산동박물관, 2011) 《백인백색전》(서울시립미술관, 2011), 《제 44회 한국화회》(조선일보미술관, 2011) 등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인천미술협회 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최정숙

CHOI Jung Sook



평화섬-곡도국 Peaceful Island-Gokdo nation
40x70x5cm 혼합재료 Mixed media 2012

최정숙은 197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와 1986년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개인전 3회와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1991년 해반갤러리를 개관하고 해반문화사랑회를 창립하여 회원들과 지역문화운동을 전개해왔으며 현재는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백령도는 작가에게 아버지와 자신의 고향이며 아버지의 청춘과 꿈이 담겨있는 곳이다.

나는 백령도의 옛 지명 곡도국의 오래고 오랜 세월이 바위에 굴곡으로 새겨진 두무진에 서서 아버지의 못다 펼친 꿈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서있는 바위와 바다 속에 나를 버리고 버렸다. 내 아버지가 서해바다 멀리 떠있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 젊은 날 6.25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피난민들과 함께했던 고단한 아버지의 생애가 묻혀있는 섬, 백령도, 곡도국!
그 섬은 오늘날도 말없이 이 나라의 최전선에서 전선을 마주하고 있다.
그 속에 그 침묵과 고뇌와 영혼을, 전쟁의 슬픔들을 담고 싶었다.

홍지윤

HONG Jiyoan



어진 바다-화려한 경계 An Ocean Of Mother Nature - Gorgeous border
6m 싱글 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2012

홍지윤은 홍익대학교 동양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표갤러리, Kunst-Direktgalerie, TNGallery 등에서 14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테크놀로지의 영상》(포항시립미술관, 2011), 《세계미술의 진주, 동아시아의 미술》(예술의 전당, 2010), 《Close encounter》(제주도립미술관, 2010), 《Meme Trackers》(송정미술관, 중국 북경, 2008) 등에 참여 했다. 독일 뮌헨문화부가 공식 초청한 Villa Waldberta와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시에 참여한 바 있고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작업에서 나는 '빨래'를 하려고 한다.

더러운 것, 또는 부정적인 어떤 것을 세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옷가지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은 물이 만나 빨래하여 원래의 옷이 그 모양새를 더 그 옷답게 하듯, 전통적인 아시아의 정서와 가치로 동서고금(東西古今)을 상충, 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감각적인 내용에 내재된 '나의 지표'를 '빨래'라는 행위의 의미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삶의 양상이 개입된 시대 현실의 삶과 가치를 문학이 기반이 된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목소리로 말하려고 한다.

모두를 감싸 안은 '어진바다'와 같은 엄마의 마음, 순수와 본질을 위한 긍정의 융합, 원융무애(圓融無礙)를 위하여.

연평도 Yeonpyeongdo

김보섭 김선두 김지원 김효숙 노순택 류성환
박방영 박인우 박훈순 백인태 오석근 율쓰앙
이수영 이이남 이인 이종구 임장환 정용일
한윤기 허용철 홍선웅



평평하게 뻗은 섬이란 뜻의 연평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 속하며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천에서는 서북방 122km에 위치하며, 북한과는 불과 2.8km의 거리로 물 위의 경계선에 마주하고 있다. 연평도에는 약 2천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민간인들을 괴롭히는 해적 등의 무리가 출몰하기도 하여 여러 차례 무인도가 된 적도 있었다. 연평도의 인구가 급증하게 된 것은 조선조 16대 인조 때 임경업장군이 조기잡이 방법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다. 이후로 외래 문물과 종교들도 이 길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에는 북쪽에서 온 수 만명의 피난민이 이 섬을 거쳐 남하하기도 하였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연평도는 물 반 조기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기잡이 배와 사람들이 북적대는 유명한 섬이었다. 지금은 조기 대신 꽃게가 많이 찾아오는 바다로 바다의 경계는 중국 어선들의 조업라인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1999년 6월 15일,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선을 월선하는 1,2차 연평해전과 2010년 11월 23일 다시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포격이 일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6.25 전쟁 이후 최초의 민간지대를 대상으로 한 포격이었으며 민간인을 포함한 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두 해를 지나면서 연평도의 마을은 분래대로 복구되어가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 당시의 기억과 포격이후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평도 당사는 25명의 참여 작가와 관계자들이 6월 14일, 15일 양일간 연평면사무소 서은미 팀장님의 상세한 안내로 이루어졌다. 연평도는 아담한 크기의 섬으로 도보가 가능한 곳이다. 조기잡이의 시초가 되었던 임경업장군을 기리는 충민사를 시작으로 평화공원, 등대공원, 조기역사관, 땅굴터널의 안보코스과 구리동 해변, 고래진굴 등의 천연의 자연을 보았다. 평화공원에서는 멀리 우리 바다에 들어와 꽃게를 마음껏 잡아가는 중국어선들이 까맣게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날 저녁 8시 연평초등학교 회랑대피소에서 연평초등학교 한상준 선생님과 서은미 팀장님의 연평도 포격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포격의 시작부터 현재 복구되고 있는 과정까지 연평도의 아픔을 들을 수 있었다. 연평초등학교 교사인 한상준 선생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바깥사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과 어린이들을 비롯해 그 날 그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을 알려주었다. 특히 어린이들은 아직도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잠재된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마친가지로 포격당시 연평도에 세 자녀와 남편을 두고 육지에 가 있었었던 서은미 팀장님의 이야기로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은 결코 과였을 뿐 분명히 원인은 분단이며, 이번 포격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분단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연평초등학교 회랑대피소에서의 워크샵은 심각한 질문과 응답이 오가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었다.

이튿날에는 연평마을 내에 총알구멍이 숭숭한 가운데 그려진 벽화거리, 복구되지 않은 집, 포탄 맞은 나무, 새대피소 등 포격의 잔상이 남아있는 곳을 둘러보며 당시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 연평도 당심 선착장 앞 유리에 포탄을 맞은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연평도는 다시 안정을 찾은 듯이 보이지만 아직도 지속중인 분단의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생생한 설치를 같았다. 부디 꽃게들이 살기 좋은 바다라고 믿고 찾아오는 연평도 앞바다에 남북사이의 어떤 분쟁도 중국과의 꽃게전쟁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물위의 경계 NLL, 인간들이 그어놓은 그 물위의 경계가 하루빨리 없어지고 조기잡이 꽃게잡이 배들과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태운 배들이 새처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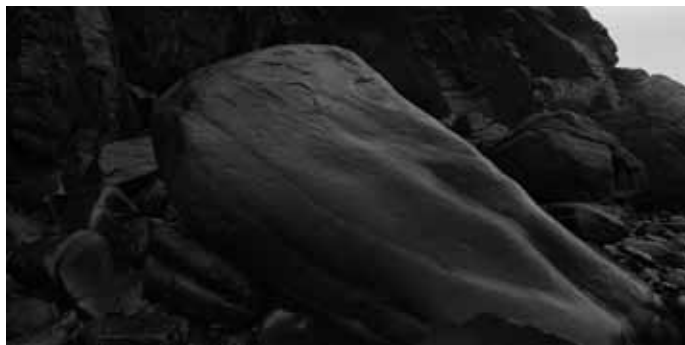
당사일시 2012. 06. 14~15 (1박 2일)

참여자 2012 평화미술프로젝트 참여작가 18명, 전문가 2명, 인천문화재단 5명(총25명)

김보섭 김선두 김창기 김효숙 노순택 박방영 박인우 박훈순 백인태 신태수 이수영 이인
이종구 정용일 최정숙 한윤기 엄종 조우치(작가) 신세미(문화일보 문화부장)
민경제(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처장) 이승미 한재성 조은주 사승현 안지선(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김보섭

KIM Bo-sub



서해안 Yellow sea coast
100x200cm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Digital Pigment Print 2012

김보섭은 인천출신이며 인천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를 졸업하였다. 1983년 동아미술제 사진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인천 차이나타운》(삼성포토갤러리, 1995)을 시작으로 최근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사진이야기》(해반갤러리, 2009), 《시간의 흔적》(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포토하우스, 2010) 등 인천을 주제로 한 다수의 개인전과 《사람과 사람》(한중문화관), 《다복집》(신포동 다복집, 2008), 《나의 살던 동네》(부평아트센터, 2010), 《인터뷰 전》(인천아트플랫폼, 2010)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서해안은 오랫동안 긴장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 출입이 금지 되어 왔다.
그런 이유로 그곳은 자연의 순수성을 유지 할 수 있었다. 나는 그곳의 순수성을 표현 했다.

김선두

KIM Sundoo



발혀주는 사람 2
Be slept on man 2
66x96cm
장지에 먹, 분채
Ink, powder color on Jangji paper
2012

김선두는 전남 장흥 출생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92년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시작으로 질박하고 꾸밈없는 무위로써의 동양미학의 정수를 화면에 드러내는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소설가 이청준과 같은 고향으로 마치 남도의 풍경과 길, 소리 한 자락과 사람들이 차지하는 화면은 그의 예술의 태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준다. 1984년 제 7회 중앙 미술 대전 한국화 부 대상을 수상하였고 1993년 제 12회 석남 미술상을 수상하였다.

(…중략…) 신부는 배교의 마지막 순간 차마 그 예수의 얼굴을 발지를 못한다. 그 때 그 아내가 슬픔과 두려움 속에 울고 있는 신부에게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아들아, 망설이지 말고 나를 밟고 가거라. 나는 밟히려 온 자가 아니냐. 어서 밟거라…….”

연평도의 어느 해변 길에서 차에 치여 포로 누워있는 쥐와 아구의 납작한 형태는 발혀주는 사람의 메타포였다. 차와 사람의 무수한 발자국으로 형태는 희미한 문신으로 길에 누워있었다. 포격과 어뢰 공격에 의해 생긴 슬픔과 상처가 납작한 포가 되어 남아있었다.

극단에 자리한 자들이 발이는 중오의 힘겨루기는 착하고 귀한 젊은이들의 목숨과 힘없고 무고한 보통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불신과 증오 속에서는 절대 오지 않는다. 상호간의 신뢰 속에서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쌀 때 한반도의 평화는 찾아 올 것이다. 두 섬을 여행하는 동안 다시는 이 땅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피눈물이 흘리지 않기를 발혀주는 사람을 통해 기원하였다. (…중략…)

김지원

KIM Jiwon



풍경 Landscape
91x61c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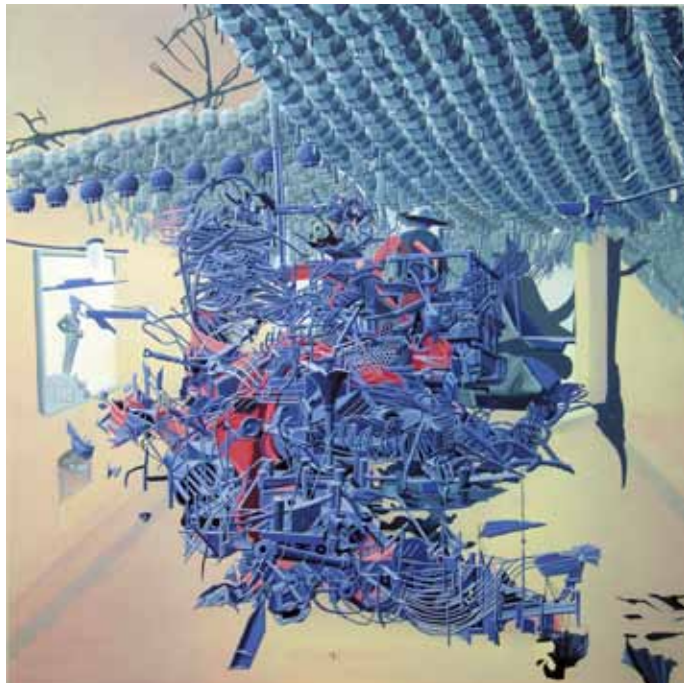
김지원은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와 프랑크푸르트 국립조형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바람처럼 전》(하이트 컬렉션, 서울, 2011), 《이륙하다전》(금호미술관, 서울, 2011) 등의 다수 개인전과 《SeMA 중간하리 2012:히트트랙》(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2), 《한국의 그림-매너에 대하여》(하이트 컬렉션, 서울)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선재미술관, 금호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하나은행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 예술 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내가 성을 자주 가는 이유는 고립감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새마을 색 페인트가 칠해진 연평도 골목의 시멘트벽에 느닷없는 포격이 만들어놓은 파편의 흔적들이 내게는 폭력이었고, 수평선위의 별자리였고, 아름답고 무심한 풍경이었다.

김효숙

KIM Hyo-suk



바다 Sea
130x130cm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2012

김효숙은 《부유하는 나의 도시Ⅲ》(OCI미술관, 2011), 《부유하는 나의 도시》(영아트갤러리, 2008)의 다수의 개인전과 《OCI 미술관 입주작가 전》(OCI미술관, 2012), 《인천아트플랫폼 프리뷰 전 해안동 10-1》(인천아트플랫폼, 2012), 《tipping point 2012》(관훈갤러리) 등 그룹전을 열었으며, 2010년 1회 송암문화재단 신진작가 선정작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송암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노순택

NOH Suntag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 - 일기
In search of lost thermos - Diary
21x13x0.5cm
30여 쪽의 일기
2010-2011

노순택은 건국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그동안 사회적 현실에 바탕을 둔 작업을 해왔다. 《망각기계》(학고재 갤러리, 서울, 2012), 《좋은, 살인》(상상마당, 서울, 2010), 《성실한 실성》(고은 사진미술관, 부산) 등 다수 개인전과 《Oh my complex》(Württembergischer Kunstverein, Stuttgart, Germany, 2012), 《PUBLIC : Occupied Spaces》(Museum of Contemporary Canadian Art, Toronto, Canada, 2012), 《Demonstrations-Making Normative Orders》(Frankfurter Kunstverein, Germany, 2012) 등 분단의 역사가 만든 한반도의 기이한 상황들을 사진에 담은 작업으로 국내외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2년 동강사진축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다.

류성환

RYU Seong Hwan



수상한 눈초리
Suspicious staring
45.5x53c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011

류성환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기획과를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숙골로 사람들 展》(studio RA, 인천, 2010), 《기울어진 삶 展》(JHGAIRY 기획초대전, 서울, 2010)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JALLA》(아시아 민중 東京都미술관, 도쿄), 《Down Hill Art Asian Exhibition》(Top Gallery, 호주) 등의 다수 그룹전을 가졌다. 2010년에는 인천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분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과 LS엘트론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초상! 발화된 공간의 흔적

걷는다는 행위는 예기치 않은 우연한 만남과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쟁의 상흔에 담겨진 사람들의 사연과 그곳 장소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이야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상에 맞물려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가 딱지가 되어 상처를 덮는다. 전쟁이란 상처는 사라졌지만 외상 후에 나타나는 긴 불안장애를 안고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일상의 실천이다. 우리들의 초상은.

박방영

BAK Bang-young



역사를 품은 바다 언덕에서 On the coast hill that keep the history
161x68cm 한지 위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Korean paper 2012

박방영은 1981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 1989년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1년에는 동 대학원 동양화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갤러리노 초대전》(서울, 2011), 《브라운 갤러리 개관 초대전》(브라운 갤러리, 서울, 2010), 《박방영의 함께 놀자》(갤러리샤뽀개관초대전, 전주)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불자노 아트페어》(이태리 불자노, 2012), 《흐름전》(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012), 《한국의 빛전》(공평갤러리)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박인우

PARK Yeen-woo



비극의 섬 Island of Tragedy
72,7x60,6cm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2012

박인우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ORIGIN 회화협회전》(워커힐미술관, 미술화관, 덕원미술관), 《현대미술의 Vision 2009》(세종문화회관 미술관), 《openaution 갤러리초대》(오픈옥션갤러리, 서울), 《골든아이 아트페어전》(코엑스, 서울), 《100인100색전》(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등이 있으며, 현재 가천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이며 한국미협 인천지회 부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채플린이 말했겠는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모두가 비극이라고. 물위에 떠 있는 섬... 아름다운 또 평화라는 단어에 가장 적합하지도 모를 섬. 원초적 자연과 수없는 생명들이 단물을 마시며 생을 유지해 가고 있었다. 그 생명들을 타전삼아 그곳에도 인간이 살아가고 있었다. 늙은이, 어부, 군인, 그의 자식들이 줄줄이 살아가고 있었다. 평화의 섬에 올라 비극의 잔해를 보았다. 인간의 탐욕과 설부른 정치, 뒤집힌 땅과 헤쳐진 민초의 마음이 내 작품의 소재가 되어버린 비극을 풀었다. 이미 늙은 어부가 숨 쉬고 뱉어내던 공기가 아니었다. 고평한 풍요도 없었다. 스산스런 눈치들이 여기 저기 눈에 띄었다. 우리는 그곳을 지나갔다. 타인으로 지나갔다. 그것을 그리고 싶었다. 이땅의 평화는 평화를 긍정할 때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의 가치를 계속해서 맘껏 외치자. 답사 아닌 휴양의 섬이 되는 날까지.

박흥순

PARK Heung-soon



연평도 1 (연평도에서 바라본 NLL선)
80x116cm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2012

박흥순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개인전(서울, 청주, 부산, 중국) 6회를 비롯하여 300여회에 걸쳐 국내외 초대전, 단체전에 출품하였고, 현재 (사)민족미술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연평도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현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단단의 아픔은 물론 중국 어선들의 NLL 인근조업 현상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가히 내게 충격적이었다. 남북의 앞마당격인 NLL인근의 어장을 중국에게 점령당한 기분이었다. 당장이라도 남북의 어선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조업을 하는 풍경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본 2012년 오늘의 풍경이다.

백인태

BAIK Intae



피스 PEACE
가변설치 Dimension variable 혼합재료 Mixed media 2012

백인태는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판화를 전공하였으며, 주요 개인전으로는 《반짝반짝》(그 문화, 서울, 2009)과 《유어인천》(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어제가 불이에어》(그 문화, 서울), 《The end of the world》(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등의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 KIST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때는 2012년 언제 전쟁 날 지 모르는 나라에서 태평하게 꿈과 낭만을 노래하며 감수성이 예민하다 믿고 있는 청년이 주저리 주저리 종북좌빨과 종남우파 사이를 가로지르며 쏘내려 간 평화이야기입니다.”

오석근

OH Suk kuhn



연평의 거울 Mirror of Yeonpyeong
69x39cm 혼합재료 Mixed media 2011

오석근은 영국 Nottingham Trent University, School of Art & Design 사진과를 졸업했으며, 주요 개인전으로는 《서해프로젝트 니나나나》(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교과서 '철수와 영희'》(베이스 갤러리, 동경, 2011), 《교과서 '철수와 영희'》(레플리카 문화센터, 부에노스 아이레스, 2010)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twisted》(성곡미술관, 서울, 2012), 《Emerging : New Photography Acquisitions》(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 《해안동 10-1》(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등의 다수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2012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작가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2년 리버풀 비엔날레 인천도시관 (Terra Galaxia) 전시에 참여하였다.

웁쓰양

WOOPSYANG



한 시대가 무심코 지나간다
An era goes by inadvertently
91x117c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011

웁쓰양은 《한 시대가 무심코 지나간다》(대안공간 프로젝트갤러리 정다방, 2012), 《EVOLUTION》(비주얼 아트센터 보다, 2009) 등의 다수 개인전과 《우주 다방展》(인천아트플랫폼, 2012), 《해안동 10-1展》(인천아트플랫폼, 2012), 《유어인천》(인천아트플랫폼, 2011) 등 그룹전에 참여하며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전쟁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유명한 사진인 (2차세계대전) 종전키스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동시에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이후 세계는 그저 평화로워 '보일' 뿐이다. 어쩌면 평화라는 것은 관념 속 이상향일지도 모른다.

이수영

LEE Sooyoung



연평도 해병대와 물귀신 Marine Corps and the Ghost in Yeonpyeongdo
51x87cm 사진, 수술용 실, 거즈 photography, surgical thread, gauze 2012

이수영은 1993년 서울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뉴욕 퀸즈대학원 설치학과를 졸업했다. 첫 개인전인 〈기록-증명〉(인사미술공간, 2006)에서는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신용카드 내역 등 자신의 공적 기록을 모아 분류하는 전시를, 《습진의 기억》(미술공간 현서울, 2008)에서는 피부병을 앓았을 때 발랐던 연고, 병원 진료기록, 매일 벗겨지는 피부각질 등을 모아 전시했다. 2011년의 〈사자의 서〉는 구제역으로 죽임을 당한 동물들이 다시는 태어나지 말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라는 위령문을 쓰고 읽고 전사하고 태우는 작업이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배를 타고 연평도에 갔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나는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 가발을 쓰고 머리엔 꽃도 꽂았습니다. 물귀신은 줄 맞춰 뛰어가는 해병대 군인들을 따라 뛰었고, 사격장과 콘크리트 대피소, 폭격 맞은 건물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스읍.
선착장의 마을사람들과 군인들도 물귀신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배를 타고 백령도에 갔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나는 어둡고 검은 명왕성교(冥王星敎) 교주 옷을 입고 손엔 해골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사제는 해병대 군인들을 만나고 마을 아주머니들을 만나고 해변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스르륵.
군인들과 주민들은 죽음의 사제를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날은 더웠고 성들은 아름다웠고 나는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즐거웠다는 엄중한 그 사실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터질듯 긴장하고 있는 피 흘린 그 섬과 바다에서 물귀신과 죽음의 사제가 행했던 주술은 '즐거움'입니다.

이이남

LEE LeeNam



매혹적인 파괴 Captivation Destruction
가변설치 Dimension variable 영상 Video 2012

이이남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콰이퐁힌 갤러리(홍콩, 2012), 아트센터 나비(서울, 2011) 등에서의 전시가 있으며, 그 외에도 《한 · 중수교 20주년》(솔리드 일루전, 북경, 2012),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ZKM, 칼스루헤, 독일, 2007), 《2012 미디어아트 전》(여수엑스포 SK관, 2012), 《코리안아이》(뉴욕, 아부다비, 2012) 등의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10년 선 미술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올해의 청년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상하가 반전된 바다의 모습은 불안하고 분단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땅과 하늘이 뒤바뀐 공간에도 굴하지 않고 바르게 지나다니는 갈매기의 모습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연평도 포격 등의 순간적인 영상과 오버랩 되는 것은 긴장감과 불안한 사건 등을 안고 살아가는 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 주소를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인

LEE In



서해- 부유하는 섬 Yellow sea-Floating Island
244x460cm 캔버스에 혼합기법 Mixed on canvas 2012

이인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가람화랑, 미술화관, 금호미술관 등에서 14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그 외에도 《한국현대미술-대서사시전》(국립현대미술관, 2012), 《시화일률》(가나아트센터, 서울, 2011), 《부드러운 힘》(성세천공미술관, 베이징),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인천아트플랫폼, 2011) 등의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OCI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아무 상관없던 일들이 어느 날 같은 주파수의 진동으로 앞뒤의 아귀가 맞을 때 우주의 오묘한 기운 앞에 나는 그저 침묵한다. 연평도로 가는 서해바다 어디쯤에서 나는 정태춘 노래 중에 〈서해에서〉를 떠올렸다. 눈물에 옷자락이 젖어도...로 시작하는 노래를 저음의 정태춘은 서해 이쯤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서해 먼 바다위론 노을이/ 비단결처럼 고운데/ 나 떠나가는 배의 물결은 멀리멀리 퍼져간다/ 꿈을 꾸는 저녁바다에/ 갈매기 날아가고/ 섬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결따라 멀어져간다.

정태춘의 서해는 쓸쓸하다.

그럼 나는? 서해를 작위적이지 않고 겸정의 단색으로 검소하게 그러나 강건한 풍경을 구축해 나간다.

이종구

LEE Jong Gu



서해 2
Yellow sea 2
200x100cm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2012

이종구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중앙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우리 농촌의 인물과 땅이란 주제를 가지고 20여 년 동안 천착해 온 그는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농민화가, 민중화가로 알려져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2005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고 현재 중앙대학교 서양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토: 세 개의 풍경》(학고재, 2010)와 수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한국현대미술-거대서사》(국립현대미술관, 2012),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전북도립미술관, 2012), 《코리아 랩소디》(삼성미술관 리움, 2011),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민중미술 15년전》, 《실크로드 미술기행전》, 《환경미술: 물》,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80년대 리얼리즘과 그 시대》 등의 국내전과 《태평양을 건너서》, 《살: 아시아의 정신과 주식》 등의 주요 그룹전에 참여했다.

임장환

LIM Jang-hwan



봄의 침묵 Silent Spring (save the peak)
130.2x162.2c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012

임장환은 계원조형예술학교 디자인학과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미술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Falling Star》(Shonandai MY Gallery, 동경, 2012), 《Silent Spring》(갤러리고도, 서울, 2011), 《Plastic WORLD》(갤러리진선, 서울, 2011)이 있고, 이 외에도 《Hong Kong Contemporary》(홍콩, 2012), 《Korean Art Show 2012》(맨해튼 소호, 뉴욕, 2012), 《ZAHARTIST-1》(자하미술관, 서울, 2012), 《2012 화랑미술제》(코엑스, 서울) 등의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09년 아시아프 프라이즈를 수상하였으며,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저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합성살충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생태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 그 파괴로 인한 인간 자신의 파괴에 관한 이 암울한 예고는 작가에게 이번 시리즈의 영감을 제공하였다. (...중략...)작품에 등장하는 기념비들은 한 시대를 지배하며 영원히 기억되고자 세워진 것들이지만, 그 욕망은 더 이상 위용과 자태를 뽐내지 못한 채 그저 역사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 버린다. 이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세월이 흐른 만큼 겹겹이 쌓인 먼지 속에서 흐릿해져 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영원함을 갈구하지만, 인간의 삶은 그저 찰나만이 허락 될 뿐이다. 우리는 임장환의 이 고요함 속에서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함을 느낀다. 임장환의 침묵의 봄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또 다른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정용일

CHUNG Yong-il



NLL-다섯길 바닷물속
NLL - Sea water five
fathoms deep
227x181cm
캔버스에 유화, 아크릴
Oil on canvas, Acrylic
2012

정용일은 중앙대학교 회화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국립파리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D.E.A를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은 갤러리 DY(수지, 경기, 2011), 타임스퀘어 갤러리(서울, 2009), 갤러리 더케이(서울, 2009) 등에서 다수 열렸으며, 이 외에도 《로테르담 아트페어》(네덜란드, 2011), 《KIAF》(코엑스, 서울, 2010), 《잘즈부르크 아트페어》(오스트리아, 2009), 《2009 상하이 국제 아트엑스포》(상하이) 등의 다수의 아트페어와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HACETTEPE 대학교(앙카라, 터키)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인천대, 중앙대에 출강하고 있고,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NLL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바닷물의 위아나 아래에도 존재한다.
다섯 길 바닷물 속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이다.
그 경계의 물속에서, 흘러가는 역사의 조류와 포탄흔적을 품은 바다
그리고 다가올 희망의 빛을 본다.

한윤기

HAN Youn-Ki



조기의 노래 Song of croaker
150x150cm 나무, 철, 조각 wood, metal, piece 2012

한윤기는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를 전공하였으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동아, 서경, 갤러리상, 스페이스빔, 갤러리진, 가네트갤러리 등에서 14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국제 미술 엑스포》(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 《c21 현대미술의 공간 전》(c21), 《서풍에 목향을 싣고 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산동 인천 국제 교류전》(산동미술관) 등의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푸른 파도가 온종일 울렁거리고 사랑이 가득한 연평도의 조기가 아름다운 햇살을 받으며 꾸덕꾸덕 말라간다. 평생 섬을 떠나지 않고 해풍에 시달린 어느 노파의 찢기 없는 앙상한 손등같이 건조대 위에서 춤을 추며 말라간다. 마르면 마를수록 더해가는 희망의 갈증을 느끼며 복讎을 향한 조기의 노래 소리를 듣는다. 오늘도 조기를 말리기 위해 간절한 햇살을 모은다.

복讎 땅이 파도위에서 아지랑이같이 아물거린다.

나는 연평도 조기처럼 날카로운 희망을 꿈꾸며 감성적인 박제가 되어가는 현대인들을 바라본다.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미래의 뱀 꼬리와 같은 희망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노래한다. 제각기 기원하는 행복의 색깔처럼 꾸덕꾸덕 말라가는 조기들. 그 옆에 정안수를 떠놓고 아름다운 꿈을 기원한다. 그리고 조기의 간절한 희망의 노래 소리를 듣는다.

아! 연평도의 푸른 바다여! 조기의 노래여!

허용철

HEO Yong Cheul



직진금지 Forbidden of Going straight
244x122cm 프린트 출력 2012

허용철은 1984년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 《학교-절망과 희망 전》, 《진경산수-강화 전》, 《생명-상생 전》으로 총 3회를 열었으며, 그 외에도 《대성리전》, 《이후전》, 《사이전》, 《현대미술상황전》, 《그림패 깃꽃》, 《지명전》, 《황해미술제》, 《교육현장전》, 《민중미술 15년 전》, 《해방 50년 역사미술전》, 《광주 통일 미술제》, 《2002광주비엔날레》, 《화랑미술제》, 《강화 물길 바람길 전》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현재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화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강화도에서 아내, 세 아이와 살고 있다.

홍선웅

HONG Seonwung



연평도 포격 Bombardment of Yeonpyeongdo
75x120cm 목판화 woodcut 2012

홍선웅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다. 개인전으로는 《홍선웅의 판각기행》(서울 인사아트센터, 인천 신세계갤러리, 2001), 《차와 대화》(인천 신세계갤러리, 2008)이 있으며, 그 외에도 《亞洲風圖展》(대만 국립대북예술대학 관도미술관, 2011), 《세계 판각 판화전-천년의 바람》(해인사),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인천아트플랫폼, 2011), 《경기도의 힘》(경기도미술관, 2010) 등의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베를린 자유대학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 저서로는 판화산문집 〈홍선웅의 판각기행〉과 판화집 〈갈아엮는 땅〉이 있다.

3개월 후면 연평도 포격사건 2주년이 된다. 그러나 남북은 지금도 여전히 대화 없이 정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6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마철 폭우로 도시가 물에 잠긴 북한의 실정에 대한 인도적인 도움은 외면한 채, 지난 3월 서울에서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은 이제 글로벌 평화 거버넌스를 창출하였다고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이대로 대화 없는 남북 간의 긴장이 지속된다면 제2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안 일어나다는 보장이 없다.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마음을 열어 놓고서 통일을 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당시의 상황을 화폭에 담아 보았다.

인천 Incheon

‘2012 평화미술프로젝트’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발발한 인천의 해전사에 관한 강의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5월 19일 오전 경인일보 정진오 기자의 “인천을 왜 세계의 전장이라 하나?”와 인천발전연구원 김창수 박사의 “인천의 전쟁과 기억의 불균형” 강의를 듣고 역시 두 분의 진지한 안내로 자유공원에서 시작하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인천역 레드비치 월미공원 월미부두 일대를 돌아본 후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보충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답사를 통해 비로소 2012 평화미술프로젝트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으며 이번 전시는 전시장에서 만나는 결과물만이 아닌 답사의 전 과정이 본 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진행 되었다.

답사일시 2012. 05. 19

참여인원 2012 평화미술프로젝트 참여작가 22명, 멘토 2명, 인천문화재단 4명(총 28명)

고진한 권윤희 김광성 김수환 김소임 김주호 김창기 김효숙 이시하라 노리코 류성환
민재영 박방영 백인태 신태수 오석근 유소정 이수영 이인 정용일 최병국 최영 최정숙(작가)
김창수 정진오(멘토) 손동혁 이승미 한재섭 사승현(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김광성
KIM Kwang Sung



지울 수 없는 이미지, 레드비치 Image that can't removing-Red beach
50x120cm 한지에 수묵채색 Ink on Korean paper

김광성은 만화가로서, 2010 <자인제노>라는 제목으로 개인전 1회를 진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2010 이와미와 친구들 만화전, 2008 달토끼 만화 회원전 등의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05년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 1984년 한국미술대상전 특선, 1983년 목우회 입선, 1981,2년 부산미술대전 등에서 입상하였고, 부천만화영상진흥원 외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로마이야기> 전집을 작업 중이다.

초대한 일도 없고 원치도 않은 전쟁이었다.
이념이 빚어낸 생지옥에는 정의도 없고 명분도 없다.
강토를 사수하지 못하면 빼앗길 뿐이다.
실사 이겼다 할지라도 승자는 없다. 모두 패배자이다.
좋은 전쟁은 없는 것이다.

김수환
KIM Soohwan



욕망의 영웅
hero of desire
가변설치
Dimension variable
2012

김수환은 인천대학교 미술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011 《어느 날 어떤 것》(송은갤러리, 서울), 2008 《노가다주식회사》(뱀뱀갤러리, 서울), 2008 《Room of SINO》(N-Space, 서울) 등이 있고, 이 외에도 2012 《우주다방 宇宙多房》(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2 《해안동 10-1》(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1 《뽕짝짬뽕 도큐멘트》(인천중구 빈집, 인천), 2011 《유어인천遊於仁川》(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08년 소마드로임센터 3기 아카이브등록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인천문화재단 NCE 특별지원사업 작가로 선정되었고, 2006년 제31회 창작미술협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인천 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중략...)사람들에겐 관심도 없는 전쟁영웅이 지층처럼 높게 쌓인 시체들을 밟고 서서 사정을 하고 바로 아래 휴가 나온 군인들은 V를 그리며 사진을 찍는다. 어느새 백발이 된 참전용사들은 경례를 하며 요즘의 시국을 한탄한다. 한 쪽 구석에 노숙자가 웅크리고 앉아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솟아오르는 분수대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수레를 힘겹게 질질 밀고 가는 아저씨의 뒤로 귀뚜라미들이 그의 발을 갉아먹으며 뒤따른다. 유원지 어느 곳에는 벌거벗은 동상이 다리를 벌리고 있고 큼직한 조형물이 하루 종일 허죽거린다. 유원지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은 기계가 되어 투박한 굴뚝으로 부연 연가를 설 새 없이 내뿜고 마지막 남은 옛 유적과 작은 골목길을 둘러싸고 있는 신도시에 어제 완공된 건물보다 높은 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된다. 뒷산은 반쯤 질려나간 채 병커가 늘어서 있고 백로 한 마리가 설 곳을 찾지 못하고 배회한다. 구름은 여유롭게 흘러가고 작년부터 덥지만 예쁘기만 한 하늘에선 남근모양의 미사일이 떨어진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로운 한때가 영원하길 바라며 각자의 시간을 즐기는 중에 호랑이 한 마리가 무심히 지나간다.(...중략...)

박상희

PARK Sang-hee



평화의 섬, 강화
The peaceful island, Gangwha
190x152cm
아크릴과 시트지 컷팅
Acrylic on canvas sheet cutting
2012

박상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11회 개인전 'A Night Walk'》(신세계 갤러리, 인천, 2012), 《10회 개인전 '야경산책-인천, 홍콩, 요코하마'》(가온 갤러리, 인천, 2009), 《9회 개인전 SeMA 신진작가지원전》(카이스 갤러리, 서울), 《8회 개인전 카이스 갤러리 기획초대전》(카이스 갤러리, 홍콩, 2009)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플라스틱 데이즈 plastic days》(포항시립미술관, 경상북도, 2012), 《재료의 연금술사》(이랜드스페이스, 서울, 2012), 《poster poster》(인터알리아, 서울), 《아트플랫폼 프리뷰전》(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부산국제아트페어》(부산 문화회관, 부산)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아르코 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예일고등학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출강 중이고,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신태수

SHIN Taesoo



평화로운 땅 Peaceful Island
192x42cm 한지에 수묵담채 Ink on Korean paper 2012

신태수는 안동대학교 미술학과와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가슴은 눈을 그리워 하고》(사카이마치화랑, 도쿄, 2011), 《진경산묵》(북촌미술관, 2010)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고려청자와 한국의 수목화》(교토국제교류센터, 2011), 《물 그리고 바람》(제주 이충섬미술관)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 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3기 입주작가이며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다.

고려의 유신 72현들이義와 忠를 다하기 위해 은거해 살았던 곳, 지금은 강화도 평화전망대 아래 철책너머 약 10km의 거리를 두 갈수 없는 땅이다. 강화해협을 건너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산은 험벗어 붉은데 모내기한 들판의 초록과 산 아래 웅기중기 모여 있는 농가들은 더 없이 평온한 모습이다. 그곳에 사는 이들의 마음은 산을 닮았을까 들판의 색을 닮았을까. 너른 들판에 맑은 초록을 풀어 그곳에 사는 이들이 밝고 푸른 희망을 품기를 기원한다.

차기울

CHA Ki-Youl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전시

황해 프로젝트

고진한 구분아 공썬루 김순임 미즈노 류세이 슌
야마가타 타다마사 왕칭 이타미 히로시 장진 최영 하연수



고고학적 풍경- 강화
Archeology of Landscape-
Ganghwa
100x300x20cm
나무, 숯, 동물 뼈
wood, charcoal, bone

차기울은 인천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 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0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우수 상을 수상하였고 2010 부산비엔날레 한국대표작가이며, 4인의 세계대표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차기울은 최근 《순환의 여행_ 방주와 강목사이》(La ART CORE, Losangels, 2011), 《갤러리 쿤스트 독, 2011), 《세계의 장소》(공간 화랑, 2009) 등의 개인전과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인천아트플랫폼, 2011), 《What do you think about Nature?》(Gallerie 89, 파리)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현재는 강화도에서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는 중이다.

소나무/ 조약돌/ 갯이 갈매기/ 파도/ 맨드라미/ 해변/ 해안포/ 개머리/ 글라디올러스/ 콩돌/ 봉숭아/ 가마우지/ 사귀/ 두무진/ 여객선/ 안개/ K-9/ 연화리/ 예수회/ 무궁화/ Pcc-772/ 까나리/ 다시마/ 해삼/ 파초/ 광성보/ 망동어/ 초지진/ 접시꽃/ 규장각/ 송어/ 강화 도령/ 양명학/ 정재두/ 연평도/ 조기/ 대청도/ 사귀/ 성공회성당/ 심청각/ 장산곶/ 연산군/ 용흥궁/ 고인돌/ 소청도/ 인당수/ 등대/ 동백나무/ 양귀비/ 우물/ 오디/ 개복숭아/ 해당화/ 물범바위/ 프랑스/ 갯벌/ 나문재

‘황해프로젝트’는 한·중·일 3개국의 작가 12명이 함께하는 전시로써 상해와 인천, 일본의 해안도시의 바다환경 재생과 순환에 관한 작업을 ‘Yellow sea’라는 주제하에 리서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이 자리한 황해의 조차는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고 긴 만(灣)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의해 조차가 매우 크다. 총 갯벌 면적의 83%가 서해안 지역에 분포하며 캐나다 동부 해안, 미국 동부 해안과 북해 연안, 아마존 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의 5대 갯벌로 꼽힌다.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썰물이 되어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바다의 바닥이다. 생태계의 순환은 곧 한 중 일 그리고 북한이 맞대고 있는 황해안의 평화로운 인적 물적 교류가 다시금 원활히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고진한

KO Jin-han



공공의 풍경 Public Landscape
112x145.5c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012

고진한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최근 《호린-그림》(통인갤러리, 2012), 《풍경을 더듬다》(빛돌갤러리, 2011), 《곡선풍경》(빛돌갤러리, 2010)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구본아

KOO Bo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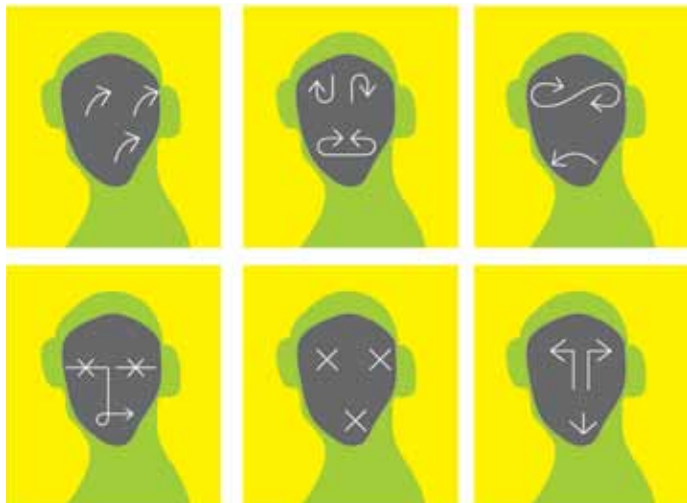


잃어버린 섬 01 The Lost Island 01
61x111cm 한지 폴라쥬 위에 먹, 채색 2012

구본아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최근 《2012 구본아 개인전》(인천신세계 원도우갤러리, 2012), 《시간의 이빨》(그림손 갤러리, 2011) 등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작가 프리뷰전》(인천아트플랫폼, 2012), 《八色居詞》(OCI미술관, 2012), 《Inner Strength》(Able Fine Art NY Gallery, 뉴욕, 미국, 2010)등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공쑤루

GONG Xinru



Emotions on Journey
33x37cm 혼합재료 Mixed media 2010

공쑤루는 1998년 상해 연극대학 무대미술과를 졸업하였다. 최근에는 《잘못된 길 시리즈》(1918예술 공간, 상해, 2010), 《도대체 어디로》(Shun Art Gallery, 상해, 2012)등의 개인전과 《바르셀로나국제에 솔박람회》(스페인, 2012), 《5*5단체전》(상해예술공간, 2012), 《호르몬과 약》(남경약미술관, 2011)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김순임

Kim Soonim



어디서 굴러먹던 돌맹이-2012 인천 I meet with stone -2012 Incheon
각 46x58cm, 21점 1set 트래싱지에 디지털프린트, 인천 돌맹이 stone from Incheon, digital print on tracing pap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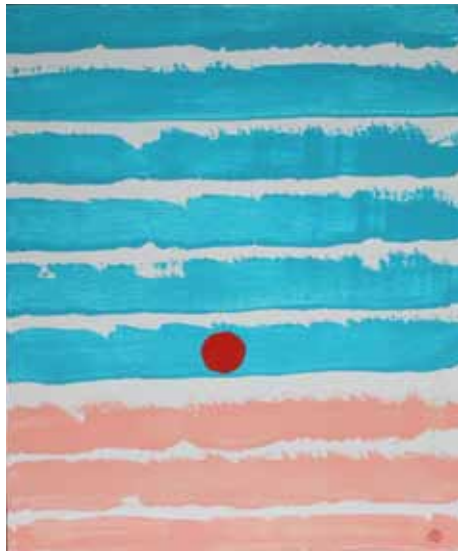
김순임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부 조소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지금까지 미국 버몬트 뉴욕 서울 인천 부산 마카오에서 아홉 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여하는 아르코 영아트 프로틴어상을 수상했으며, Freeman Asian Award Full Fellowship Winner(버몬트),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신진작가, 서울시립미술관 신진 작가,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전시 지원 작가로 선정되었다.

(...중략...)이번 황해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내가 거주하던 일상공간 인천 답사를 통해 켜켜히 쌓인 역사와 자연, 사람과 이야기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곳의 땅을 이름없이 굴러다니던 돌맹이를 답사 중 만났고, 아직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들을 전시장 공간으로 옮겨와, 또다른 인연을 만나게 하고자 한다.

거대하고 화려한 역사는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속을 함께 한 이 돌들은 그 거주하였던 공간이 거대한 역사에 휘말렸던 때에도 어쩌면 그곳에서 어제처럼 오늘을 살았을지 모른다. 우리들의 부모와 그 부모들의 삶처럼...

미즈노 류세이

MIZUNO Ryusei



Beautiful Sunrise 111
72.7x60.6cm
캔버스에 아크릴
Acrylic on canvas
2012

미츠오 료세이는 도쿄대학 미술음악대학에서 일본미술을 전공하고 상하이에서 인도 안료 드로잉을 공부한 후 다시 프랑스로 가 에콜 데 보자르에 들어가 미술을 공부하였다. 주로 일본과 중국을 주 무대로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졌으며 《남송국제아트쇼》(서울, 2010)등에서 한국미술계와 교류를 넓혀나가고 있다.

순
Shun

Heart
170x170x10cm, 혼합재료 Mixed media 2006

순은 복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다시 2001년 동경문화패션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에스모드 동경과 파리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2008년 세이슈카이 MFA(Ministry of Foreign Affairs) 수상을 하였다.

최근에는 《The Merged Love》(주기청미술관, 상하이, 2008), 《마쓰야마정원미술관, 치바》, 《Green Men and Red Woman》(상하이, 2007) 등의 개인전과 《자연》(명원아트센터, 상하이, 2011), 《에너지_중-일-한 3인전》(상하이, 2010), 《온고지신》(상하이, 2010)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야마가타 타다마사

YAMAGATA Tadamasa



Like a bird, Like a fish

300×300cm 설치 A wall installation 천, 철사, 색종이, 인광물질 Clothes, wires, coloured origami, phosphorescent material 2012

야마가타 타다마사는 오카야마 간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예술대학 석사를 졸업하였다. 이후 도쿄를 주 무대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BOX》(ART미술관, 도쿄, 2000), 《CHEER YOU UP》(HOT화랑, 오사카, 2001), 《위로전1》(HOT화랑, 오사카, 2003)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왕칭

WANG Q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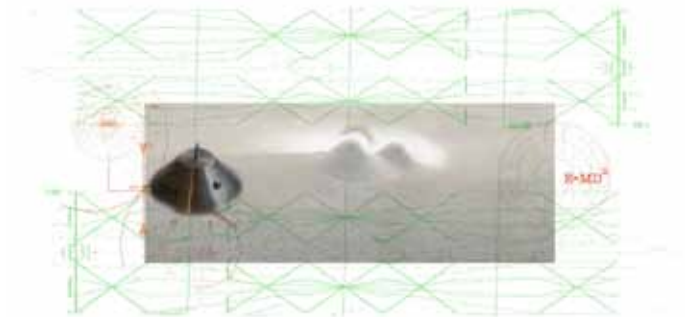


蓝色幻影
Dark Eden
100x100c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012

왕칭은 1982년 중국국립미술학원에서 중국미술학을 공부하고 일본의 타미미술대학 미술학 석사와 일본국립동경대 대학원 미술연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외에 제 1회 카나카이스 기념전 대상, 동경 에도가와 문화상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그의 전시이력을 보면 한 중 일을 주무대로 하여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이타미 히로시

ITAMI Hiroshi



Shift of consciousness = The rainbow of consciousness

200x100cm 캔버스에 혼합매체, 실크스크린 A three dimensional rainbow, a light bulb, aluminium, silkscreen on canvas 2012

이타미 히로시의 이력은 다양하다. 1976년 실험음악 활동을 시작으로 오카베 문하에서 실크스크린을 습득한 후 파이널아트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 1980년에는 스튜디오 360 GRAPHICS를 설립하여 비도표현주의를 선언하였다. 1999년 예술대안공간인 Para GLOB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 《건축 7.38 Hz 심포니 빌딩》(편트화랑, 오카야마, 2006), 《건축 7.38 Hz 심포니 빌딩》(하네 우사기화랑, 교토, 2005), 《무지개프로젝트》(오모테산도화랑, 도쿄, 2003) 등의 개인전과 《2010년 보고서》(하구레 화랑, 도쿄, 2010), 《Parcours-Way-Michi》(도쿄현대미술관, 2009), 《도쿄로컬2》(코조메 화랑/파라글로브, 도쿄, 2009)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중략...) 황해에 의한 정치, 경제, 문화 문제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연안 국가들에 대한 작업이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에 초점을 만들 수 있고 오래 소용돌이가 긴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왜곡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교차 지점에서, 에너지 왜곡을 조정하는 장치는 평화를 위한 희망을 나타내는 곳에 위치한다. 평화의 다리를 상징하는 3차원 원형 모양의 무지개 공간이 그것이다.

장진

JANG Jin



면 섬 Remote Island

지름 100cm 한지에 수묵채색 Ink on Korean paper 2012

장진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하였다. 최근에는 《달빛프리즘》(갤러리 스페이스 R, 2011), 《별별동행》(OCI미술관, 2012) 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또한 2010년 인천아트플랫폼과 2011년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최영

CHOI Young



망막에 비친 그림(46척) Picture on the retina
90x161cm 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 2010

최영은 대구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최근에는 《245&386》(공평아트센터, 2011), 《Fn art Vision Award》(세종문화회관, 2010), 《망막에 비친 그림》(사이아트 미술연구소, 2010)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참여하였다. 이외에 국경없는 미술공간 레지던스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하였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은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각계인사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가설 또는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된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침몰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작품을 들여다보면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수많은 배들이 떠있다. 배들의 수는 총 46척이며, 고요한 바다위에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당시 나는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분위기에 유감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순직한 46명의 장병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제작되었다.

하연수

HA Yeonsoo



오아시스 - 마음속의 바다 :
YELLOW SEA
OASIS-SEA IN MY MIND :
YELLOW SEA
120x170cm
한지에 석채, 비단 위에 먹, 채색
Stone Powder On The Korean
Paper, Color & Ink On The Silk
2012

하연수는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의 주요전시로는 《한국, 베트남, 러시아 문교류전》, 《Alive and Kicking in KOREA》, 《지금, 서울의 오늘》, 《고구려 다시보기 전》, 《새로운 동양의 이미지 전》, 《지구의 기억 전》 등이 있다.

벽에 걸린 평면 작품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노란색의 바다를 그린 것은 이상적인 세계로의 도피, 위안을 얘기하고자 한다. 평면작품 앞에 설치될 늘어선 색색의 천들은 매일 매일 바뀌어 변화하는 하루하루를 느끼게 해주는 바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연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 또한 평화를 깨뜨리는 것으로 늘 거대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새로운 평화로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인천아트플랫폼, 2012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저자와 작가 및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2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soever
wh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copy holders.

인천아트플랫폼 400-021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tel. 032-760-1000

INCHEON ART PLATFORM 218-3 Jemullyang-ro, Jung-gu, Incheon, S.Korea 400-021 tel. +82-32-760-1000 www.inartplatform.kr